

5~6월

늘어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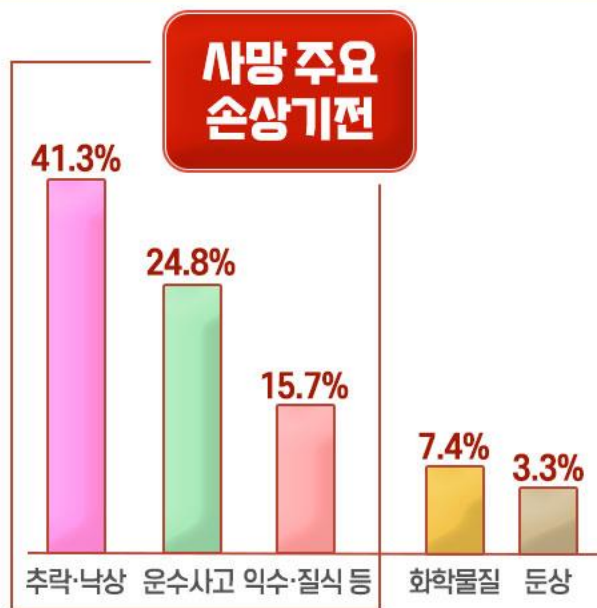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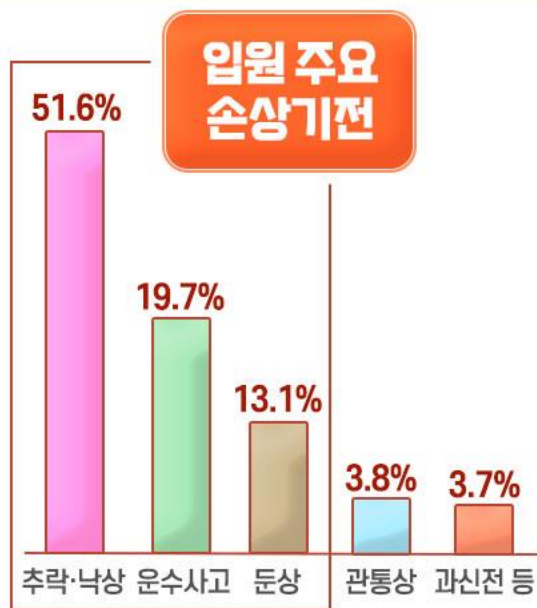
어린이 손상 사고

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!



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·낙상 및 운수사고!

어린이 사고 진료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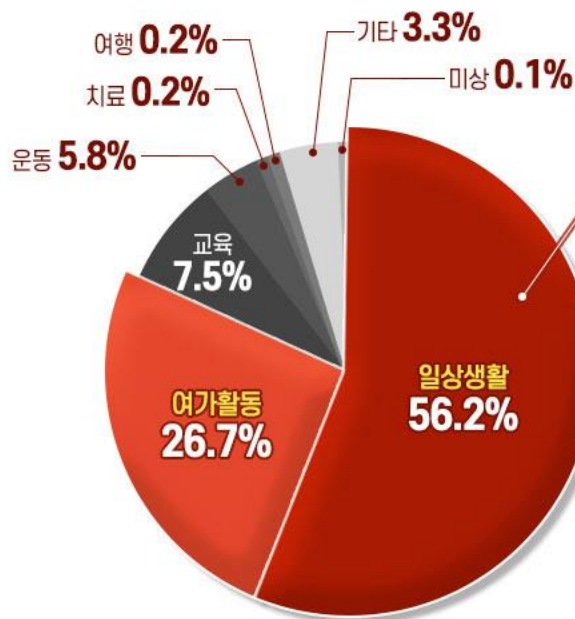
*출처: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(2018~2022년)

**입원을 유발하는 추락·낙상 사고는 51.6%,
사망을 유발하는 추락·낙상 사고는 41.3%로써
추락·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**

어린이 손상 사고,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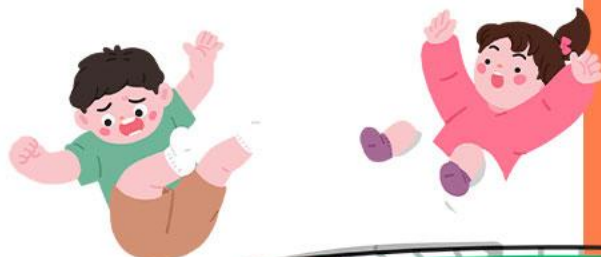
어린이 손상 사고는 5~6월, 7월,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,
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(13~18시)에 주로 발생합니다.

어린이 손상 사고 당시 활동



**주로 일상생활, 여가활동* 중
손상 사고 발생**

*자전거 타기, 키즈카페 이용, 종이접기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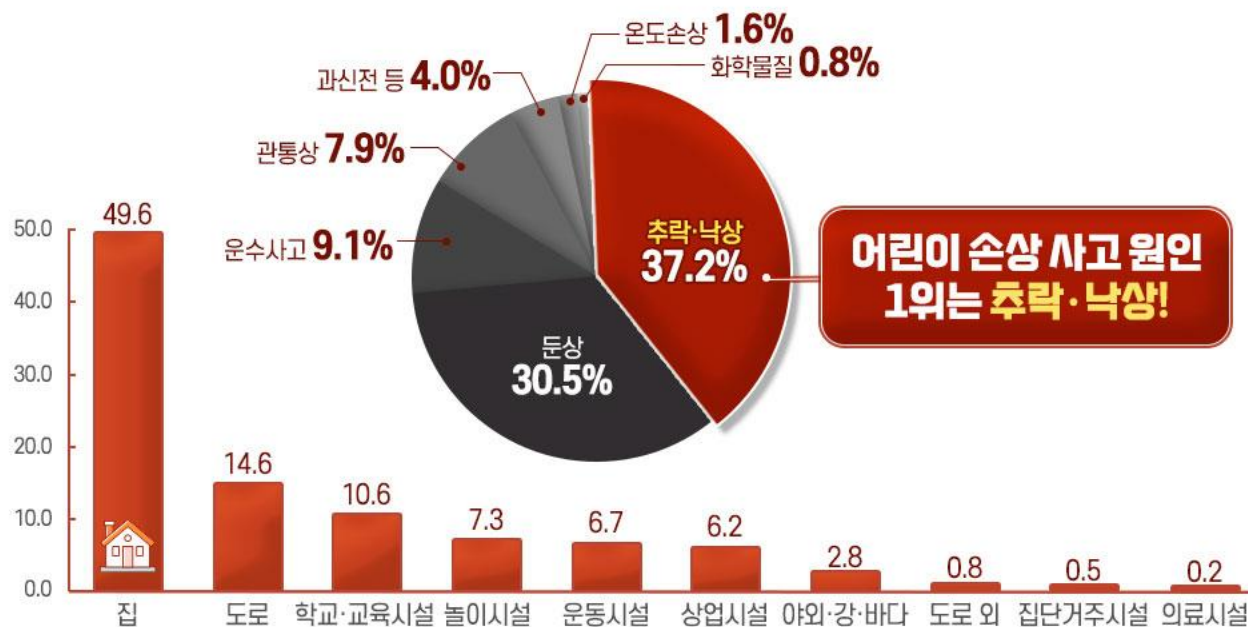
*출처: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(2018~2022년)

어린이 손상 사고,

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?

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, 도로, 학교·교육시설 등이며
추락·낙상, 둔상,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.

사고 발생 장소 및 원인



*출처: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(2018~20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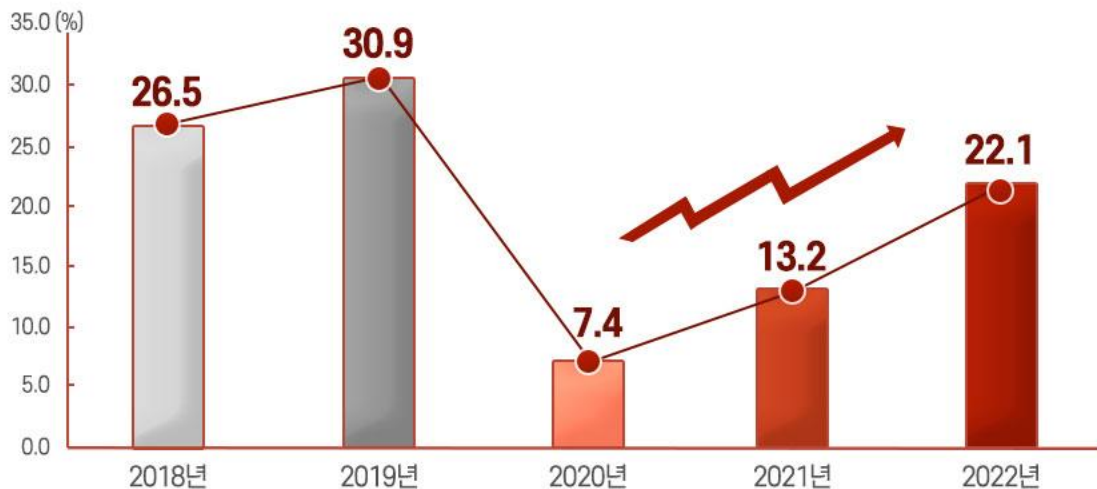
교육·체험활동 중

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!

최근 3년간('20~'22년) 체험활동 중
어린이 손상 사고*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,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,
요리실습 중 화상,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

체험활동 중 발생한 어린이 손상 사고 분율



*출처: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(2018~2022년)

- 어린이 손상환자 수(2018~2022년): 142,853명(전체 손상환자의 12.4%)

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

야외활동 시



**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,
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**
※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.

물놀이 시



**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,
구명조끼를 착용하며, 준비운동을 합니다.**

폭염 시



**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,
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.**

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

차량 이동 시



반드시 **안전벨트**를 착용하고,
교통 **안전수칙**을 준수합니다

도보 이동 시



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,
비탈길에 주·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.

사고 발생 시



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,
필요한 경우 **119**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.

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
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